

## 주요 간부 줄사표...보건연에 무슨 일이?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싸이월드공감

입력일 2012.09.26 17:40 | 수정일 2012.11.13 10:10

### 실장·본부장들 대거 사임으로 연구 차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연)이 출범 3년만에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지난 1월 26일 이선희(이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대 원장 취임 이후 주요 보직자들이 줄줄이 그만둔 연구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가장 먼저 떠난 것은 배종면 임상성과분석실장(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지난 1월말 이 원장의 자질 문제를 지적하며 사표를 냈다. 그는 “이 원장은 국가가 임상지침 개발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온 장본인”이라며 “취임 직후 본인의 보건연 운영 방침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해 그만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임용 추천위원회에서 1위 후보에게 상당한 점수차로 2위를 했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무시하고 낙점한 인물”이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보건연 수장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4월에는 변영복 경영지원실장이 권고사직을 당했다. 6월에는 이현주 의료기술분석실장이 사직했다. 그 후임인 권진원 실장은 2개월만에 경북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지금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과장 출신이 일하고 있다.

지난 8월말엔 이상무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마저도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사직했다. 그는 허대석 초대 원장과 함께 보건연 설립과 기반 확충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했던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평가사업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내 근거중심 의학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해왔다. 이 전 본부장은 “이 원장이 취임할 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외에 다수의 무기 계약직 직원들이 2년이라는 정규직 전환 조건을 채웠음에도 보건연이 명확한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줄줄이 그만뒀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큰 우려를 나타냈다. 한 전문가는 “보건연은 근거중심 의학 발전을 위해 어렵사리 설립된 기관”이라며 “주요 직원들이 줄줄이 그만두니 본연의 연구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이 원장 취임 이후 연구 실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보건연측은 “이 원장의 취임과 주요 연구 책임자들의 잇단 사퇴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각종 연구 과제들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산 관리 담당자가 갑자기 그만두면서 생긴 공백으로 홈페이지에 연구보고서를 제대로 게재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통상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데 2~3개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원장이 취임 이후 공개된 연구보고서는 ‘우울증, 자살 그리고 한국사회 Round-table Conference’(4월 22일)이 유일했었다. 이후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연구원은 지난 8월 23, 24일 11건의 연구보고서를 무더기로 홈페이지에 올렸다. 하지만 이렇게 공개된 연구실적은 모두 지난해 완료된 것들이었다. 올해 수행된 연구의 보고서는 한 건도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배종면 전 임상성과분석실장은 “통상 연구보고서는 최종 수정일로부터 짧게는 한 달, 최대 두 달 이내에 공개해왔던 것이 관행”이라며 “올해 완료된 연구 과제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보건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보건연은 황규성 전 경영기획팀장을 파면했으나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부당 해고’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연 관계자는 “황 팀장이 자신의 경력을 부풀리고 법인 카드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의 이유로 파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노위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파면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정했다. 보건연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면서 황 팀장을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해화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보건연은 파면을 결정한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당사자인 황팀장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 ['보건의료연구원 연구 차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코메디닷컴은 지난 9월 26일 “주요 간부 줄사표...보건연에 무슨 일이”제목의 보도에서 이선희 2대 원장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취임한 후 주요 보직자들이 회사를 그만둔 연구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비위 간부 파면,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거부 등과 관련한 연구원 운영의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연구원이 황 모 간부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 잡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회사를 그만둔 보직자 중 일부는 비위사실에 연루되어 불명예 퇴사했고 나머지는 이직 등 개인희망에 따라 퇴직한 것일 뿐이며, 현재 연구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어 그 결과는 내년 초 연구기획관리위원회 심의 후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연구원은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계약직은 공채를 통해 정규 채용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오현 기자 (cartier1629@kormedi.com)